

중국 농식품 가공 산업의 현황과 발전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Agricultural Food Processing Industry in China

정호철, 문광덕¹, 정신교^{1*}

Hu-Zhe Zheng, Kwang-Deog Moon¹, Shin-Kyo Chung^{1*}

경북대학교 식품생물산업연구소 · 중국 요녕농업대학, ¹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과

Food and Bio-industry Research Institut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iaoning Agricultural College, China

¹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I. 서론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한국과 중국간의 농산물 및 농산 가공식품의 교역이 날로 증기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1). 따라서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서는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의 현실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문에서는 중국의 최근 5년 간의 정책 및 대책을 중심으로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1976년 문화대혁명을 끝낸 이래 중국은 개혁개방의 설계사 덩소평(鄧小平)의 지도방침 하에 개혁개방을 진행하여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의 경제 성장율을 기록해 일부 연해지역은 이미 소강(小康) 상태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지역발전의 불균형성으로 인해, 농업이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서남부는 경제가 낙후하여 아직도 많은 발전이 필요한 실정이다.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고도 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의 발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농업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는 三農(농업·농촌·농민)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중국경제 발전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나

아가서 중국의 지역 간 균형적인 개발과 농촌경제의 발전은 향후 주요 정책과제로 상정될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발전의 불균형을 극복하여 번영과 공동발전을 꾀하고자 정부는 많은 노력을 진행하였는데 이미 진행한 10차 5개년 계획안(計劃案, 2001~2005년)과 현재 진행 중인 11차 5개년 계획안(規劃案, 2006~2010년)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새로운 발전전략은 '과학적인 발전관(科學發展觀)'과 '조화로운 사회건설'이다. 이러한 시기에 출범한 11차 5개년 계획안은 소득격차의 축소 및 사회보장혜택의 확대를 통해 소비를 자극함으로써 소비의 성장 기여도를 제고하는 한편 경제효율을 높여 성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목표로 삼농문제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2). 현대화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업과 농업 산업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고 농업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21세기에 과교흥농(科教興農, 과학기술과 교육으로 농업 발전시킨다) 전략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산업화 경영과 농촌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놓고

Corresponding author: Shin-Kyo Chu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1370 Sankyuk-dong, Puk-ku, Daegu 702-701, Korea
Tel: +82-53-950-5778
Fax: +82-53-950-6772
e-mail: kchung@mail.knu.ac.kr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농업 과학기술 혁명을 대폭 추진하여 농업 관련 과학기술과 교육의 비약적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과학기술로서 농업 생산의 여러 분야 발전을 추진하며, 생산력을 향상시켜 농업 현대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II. 농식품 가공산업의 현황과 발전전략

1. 현황

10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농식품 재가공(再加工) 프로젝트 등의 효과적인 지원과 과학기술진보에 힘입어 가공산업을 핵심으로 한 중국의 농식품 산업이 급속한 발전을 가져와 지역 경제를 번영시켰다. 일례로 1999년 중국의 식품공업의 총생산액은 7,828억 위안, 농업 총생산액이 2조 4,542억 위안으로, 식품공업이 농업 총생산액의 약 30% 정도에 불과했으나, 10차 5개년 계획기간 후 식품공업 총생산액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해 2004년에는 1조 6,000억 위안에 달함으로써 농업 총생산액의 약 50%에 달하게 되었다. 아울러 농식품산업 총생산액도 3조 6,000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농업 총생산액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농식품 가공산업의 부가가치가 1조 1,000억 위안을 기록해 국민 경제 GDP의 9%를 차지하였다. 또한 상품의 산업 구조를 향상시켰으며, 점차적으로 농산물의 초가공(初加工)에서 심가공(深加工)으로의 전환을 완성하였다. 농식품 가공산업의 규모도 확대되었고 핵심경쟁력도 향상되었다. 2003년 중국의 농산물가공 분야 고용인력 수가 1,608만 명에 달해 전체 공업 분야 고용 인력의 28.2%를 차지하는 등 농식품 가공산업은 중국 국민경제에서 가장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발전가능성 또한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3). 그리고 농식품 가공산업 지역이 생산단지 및 시내 근교 부근에 집중되어 우수 산업단지를 초보적으로 형성하였다. 특히 농식품 정밀가공과 관련된 공용기술연구, 가공 설비 개발, 전 가공과정 품질 제어시스템 구축, 가공전용 품종 선별, 원료생산기지 건설, 기술혁신시스템 및 발전전략 연구 등에서 큰 성과를 이룩해 종합적으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문제점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에 가입하여 농업뿐만

아니라 농식품 가공산업도 농업뿐만국제 질서환경하에서 발전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농식품 가공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려면 농업정책도 반드시 WTO의 규정가입하여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은 WTO에 가입 후 현재까지 전 부문에서 책임과 의무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여 왔으며 농업분야 역시 끊임없이 국제시장에 적응하면서 자국의 위치와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은 전체 생산량의 20~30%에 미치는 수준이나, 선진국에서는 90% 이상에 이르러 중국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4,5). 따라서 중국에서 농업 및 농식품 가공산업은 최근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취약한 산업으로 인식된 중국 농식품 가공산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운영체제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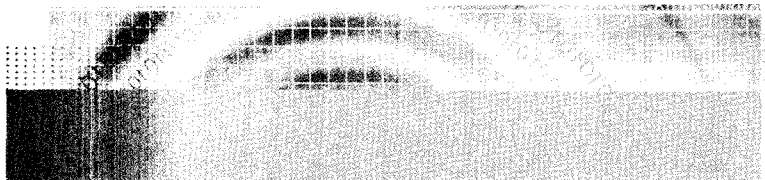
규범화된 관리체제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농식품 가공산업 관련 정책은 정부의 여러 관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농식품 가공업체는 어느 정부 기관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분야 정책을 과학적으로 제정하여 산업발전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2) 기술적 측면

전문적인 가공용 식량작물의 품종이 부족하고 기술력이 떨어지며, 원료 생산 및 기지의 건설도 낙후하다. 농식품 가공은 규범화된 주력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분야로서 기초 시설이 잘 갖춰져야만 가공 상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선진국은 이러한 부분이 매우 발달되어 있지만 중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최근에는 이 모순이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밀가루의 가공용 품종은 현재 미국에서는 100종, 영국 70종, 일본 60종의 품종이 있는 반면, 중국에는 20종 밖에 없는 실정이다.

3) 품질적 측면

각종 농식품의 생산 및 가공량은 크게 증대되었지만 우수한 상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중국 농식품의 품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원인은 계획 경제체제의 영향과 품종, 기술상의 요인 외에도 자연의 법칙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조건에 맞지 않는 계획안에 따라 '평균적인 발전' 모델을 추진한 결과, 품질적으로 저급한 농식품이 대



량 생산되는 악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4) 경쟁력 측면

산업 표준 및 시장 체계가 완전하지 못하여 중국 농식품이 보유하고 있던 저렴한 생산 및 가공 원가의 경쟁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일부 노동 집약적인 상품 시장에 있어서는 중국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지만 다른 개발도상국과의 유사한 산업구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져 시장점유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또한 중국 농식품이 국제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 있고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농식품브랜드의 개발 역시 상품의 질과 양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 발전전략

10차 5개년 계획안의 성공적인 실현과 성과에 힘입어 중국 정부에서는 야심찬 11차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 10차 5개년 계획까지의 '계획' 개념 대신에 이번 11차 5개년 기간부터는 '규획' 개념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시장경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행동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11차 5개년 규획 기간은 중국의 전면적인 소강(小康) 단계를 건설하는 기간이다. 따라서 농촌과 도시주변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고 농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에 환경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중국은 최근 수 년 동안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환경을 위하여 충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에서는 '사회주의 새 농촌 건립'을 위한 전략적 임무와 방침에서 '공업이 농업을 촉진하고 도시가 농촌을 이끌어주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2004년 이래 농업발전을 위한 일련의 정책을 제시하여 농업과 그 가공산업의 발전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농식품의 가공산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외국의 선진적인 기술, 자본을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판매 시장도 확대할 수 있어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한다(6,7).

1) 농식품 산업 발전의 원칙

(가) 사람이 근본이라는 원칙을 견지한다.

농업의 발전, 농촌의 번영, 농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농식품 산업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기점으로 하여 전업화·표준화·규범화된 원료생산기지를 건설하여 가공산업체와 농가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윤을 균일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취한다.

(나) 시장경제 원칙을 견지한다.

시장이 자원을 지배하는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연구와 개발을 통한 상품 브랜드화로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발전 가능성 있는 농식품 가공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제적으로 경쟁이 있는 회사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다) 질량안전 원칙을 견지한다.

완벽한 농식품 가공 표준 체계를 건립하고, '생산지에서 식탁까지'의 전반에 걸친 질량공제 시스템을 확립한다. 식품가공 위생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무공해 식품·녹색식품·유기농 식품 생산을 대폭 발전시킨다.

(라) 과학기술과 혁신의 원칙을 견지한다.

'기업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하에 상업화와 관련된 문제를 집중 연구함으로써 중국의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 공용 핵심기술과 공법, 장비를 개발하며 농식품의 재 가공 표준 및 전체 가공과정의 품질제어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 본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발전 체계를 건립한다.

각 지역의 자원, 경제, 시장 및 기술력의 우세를 충분히 이용하여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농식품 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 궁극적으로 자원우세·지역우세를 경제우세로 전환시킨다.

(바) 지속적인 발전의 원칙을 견지한다.

지속적인 발전 전략을 펼쳐 친환경적인 자원·절약형 농식품 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 원료기지의 건설은 반드시 생태환경 건설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농식품 가공 전체 과정에서 청결과 재활용의 원칙을 견지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키며 최종적으로 농식품

가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2) 농식품 가공산업 발전 정책

중국 정부에서는 농식품 산업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농민들의 수입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그 어떠한 기회라도 활용하고 산업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활용하여 산업발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많은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다.

(가) 재정, 금융 및 세금 징수 분야에서 편리를 도모한다.

2004년 국무원 관공실에서 발표한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계속하여 관철, 집행할 것이며, 여러 기관에서 농식품 가공산업을 일심양면으로 이끌어 주고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농식품 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를 지지하며, 장기적인, 저금리의 대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나) 기업체와 농가간의 연합을 고무하고 격려한다.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용두(龍頭)기업체 + 전업적인 농민합작 경영조직 + 농가’의 경영 모델을 개선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농민합작 경영조직에서 농식품 가공기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용두기업체가 농식품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격려하여, 용두기업체를 중심으로 대형의 농식품 생산·가공 및 판매기지를 설립하여, 최종적으로 전업화·표준화·규범화된 농식품 가공산업단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다) 건전한 사회 봉사 질서를 확립한다.

각종 봉사업체에서 농식품 가공산업 운영에 참가하는 것을 고무격려 한다. 우수한 농식품 가공업체, 판매업체가 각종 국내외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격려하며 농식품 가공산업의 창업, 융자담보, 과학기술 지도, 상업정보의 전달, 정책 수립을 자문하는 등의 면에서 지원해준다.

(라) 기술개혁의 발전을 가속화한다.

여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948’ 등 농식품 가공항목에 투자를 높인다. 또한 농식품 가공산업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중소기업체의 상품개발, 기술확보, 직원의 연수 등을 격려한

다. 대기업체에서 R&D센터를 운영하거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협작을 격려한다. 즉 ‘기업을 주체로 하고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연구체계를 확립’ 하여 농식품 가공산업의 기술·개혁을 꾀한다.

(마) 농식품 one-stop생산 라인을 구축한다.

농식품 가공 산업 공정의 건설을 추진하여 우수한 농식품 가공업체 군락과 가공업체에 합당한 산업구조를 형성한다.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최종적으로 가공원료의 표준화·규범화·전업화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농식품의 질량표준과 검사체계를 확립하며, 원료에서 상품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생산관리와 제품의 질량을 통제하며 농식품 가공산업의 관리와 생산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

III. 농식품 가공 산업의 발전 전망

10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농식품 가공기술혁신시스템 및 발전전략연구를 통하여 중국 농식품 산업과 관련한 중국내외의 발전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주요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따라서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국 농식품 가공분야의 우선적인 발전방향을 검토하였다. 현재 중국 정부는 새로운 농식품 가공산업의 성장 거점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 발전을 기반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즉,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농업현대화로 주 곡물의 대량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가공산업의 현대화를 이룩하여 농식품의 가공화를 통한 고품질 및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8). 중국의 1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지원되는 여러 농식품 가공산업의 분야와 지역 분포 특성은 다음과 같다(9,10).

1.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점 추진 산업과 분포

1) 옥수수 생산 및 가공단지 분포

식용유·옥수수 육종 및 생산, 연료용 알코올 생산기술, 고품질 포도당 생산기술, 옥수수 전분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생산기술 등의 분야의 가공산업 기지를 육성한다. 주요한 생산지는 길림, 흑룡강, 요녕, 내몽골 등 북방 지역과 허북, 산둥, 허남 등 황해 평원지역이다. 특히 허북, 길

립, 산동 등 지역에 대형의 옥수수 전분 가공산지를 건설한다. 감숙, 신강 등 서부지역과 청장고원 지역에는 특색 있는 옥수수 상품을 개발하거나 옥수수 사료 공업 생산 단지를 건설한다.

2) 밀 생산 및 가공단지 분포

밀 단백질 고효율 분리 및 건조기술, 밀 전분을 이용한 화학조미료 생산기술 및 가공방법을 개발한다. 그리고 밀 가루 부산물의 재활용 비율도 10% 이상 제고한다. 주요한 생산지는 하북, 산서, 강소, 안휘, 하남, 감숙 등 지역이다. 주요한 가공 산업 지역은 길림, 흑룡강, 요녕, 강소, 강서, 호남 등이며 이 지역은 일일 평균 생산량 1000 톤 이상의 밀 전분 생산라인을 구축하며, 광둥, 북경, 천진, 상해 등지에는 일일 평균 20만 봉지의 라면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3) 과일 생산 및 과일 농축액 가공단지 분포

사과 농축액의 침전 방지기술, 색상변화 제어기술, 방향물질 회수기술 등 문제를 해결한다. 감귤 액화기술, 농축액 쓴맛 제거기술, 감귤 오일 추출기술, 마이크로 캡슐화 기술, 무균포장기술 등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며 감귤농축액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원료 주 생산지에서 과일 농축액 및 반제품을 만들고 대·중형 도시에서 가공하여 완제품으로 만든다. 요녕, 산동, 섬서 등의 지역은 주로 사과 농축액 가공산업을 발전시키고 내몽골, 감숙, 념하 등 서부 지역은 토마토 농축액, 포도 농축액 등 가공산업을 발

전시키며, 천진, 하북, 안휘 등 지역은 복숭아 농축액 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 그리고 북경, 상해, 광둥 등 지역에서는 각종 과일 음료의 완제품을 만든다(그림 1).

4) 과일 통조림 가공단지 분포

과일 통조림의 가공에 적합한 과일 품종을 육성하며 그 가공 특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과피 제거기술, 자동 살균 시스템 등 가공 공정 기술을 개선하여 '품질이 높으며', 포장재료 연구를 진행한다. 하북, 절강, 안휘, 복건, 산동, 호남, 신강 등 지역은 과일 및 채소 통조림 가공산업을 발전시키며, 절강, 사천, 호북 등 지역은 감귤 통조림 가공 산업단지를 발전시킨다.

5) 과일 및 채소의 신선도 유지 및 냉동 가공단지 분포

과일, 야채 신선도 유지기술 및 관련 설비를 개발해 생산·저장·운송·판매가 통합된 산업 모델을 형성한다. 또한 냉동보관 및 가공에 적합한 과일 품종을 육성하며 그 가공 특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다. 쾌속냉동 및 해동 기술을 개발하며 과일 및 채소의 쾌속냉동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냉동기기로는 초저온 이산화탄소 분무식 고속 냉동기의 개발을 진행하며, 냉동포장 재료를 연구·개발한다. 산서, 강소, 절강, 복건, 산동 등 지역은 과일 및 채소의 탈수건조 가공산업을 발전시키며, 영하, 신강 등 지역은 사과, 마늘 무, 고추 등의 탈수건조 가공산업을 발전시킨다. 하북, 요녕, 강소, 절강, 산동, 광둥 등의 지역에는 과일 및 채소의 냉동보관 산업 단지를 건설한다. 특히 중국 동남부 연해지역에 집중적으로 건설한다.

6) 우유제품 가공단지 분포

원료용 우유와 그 가공제품의 영양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며 치즈, 발효제품, 유아용 식품을 개발하고 맛과 향 품질이 뛰어난 우유제품을 개발한다. 국제적으로 선진적인 발효균을 개발하며 유제품 안전검역 기술을 연구한다. 주요 가공산업 단지는 목축업이 발달한 내몽골 동부, 길림, 흑룡강, 요녕 등으로 이 지역은 젖소 양식 기지와 우유제품 가공산업기지를 함께 건설한다(그림 2).

7) 차잎 가공단지 분포

차잎 가공 기술을 연구하여 차 가공의 기계화·표준화를 실현한다. 특히 녹차의 기능성과 가공 초기단계의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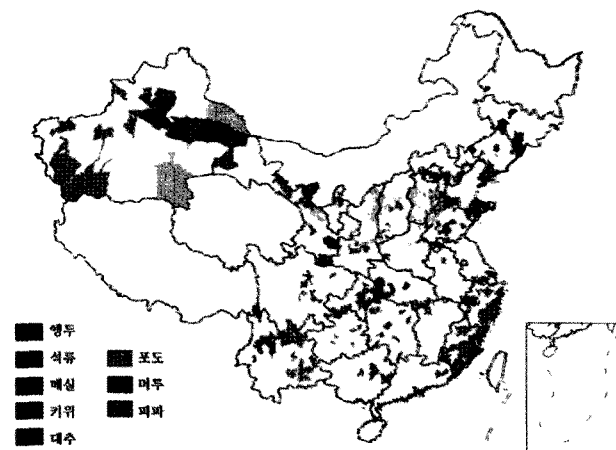


그림 1. 주요 과일 제품 생산 및 가공 지역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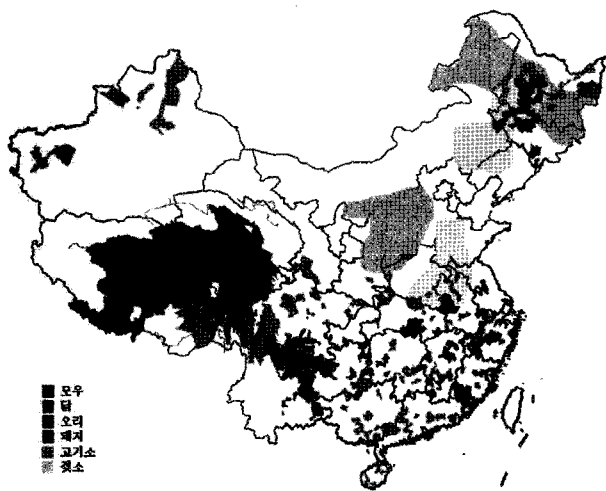


그림 2. 주요 목축업 및 가공산업 지역 분포도

성을 연구하여 현대적인 가공 식품의 컨셉에 맞는 녹차 가공품 생산라인을 구축한다. 새로운 차 음료의 개발과 녹차 원액의 가공기술 및 천연 녹차성분을 추출하고 그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녹차 기능성 음료를 개발한다. 차의 일차적인 가공산업 단지는 생산기지 주변에 건설하며, 이차적인 가공산업 단지는 연해지역에 건설한다. 원료의 수송에 편리를 도모한다는 전제하에서 차의 가공 공정을 늘린다. 특히 차의 전통적인 가공의 비중을 줄이는 반면, 정제품의 가공 공정 비중을 대폭 늘려 일차가공에서 이차가공으로의 심화를 꾀한다(그림 3).

8) 벌꿀 가공단지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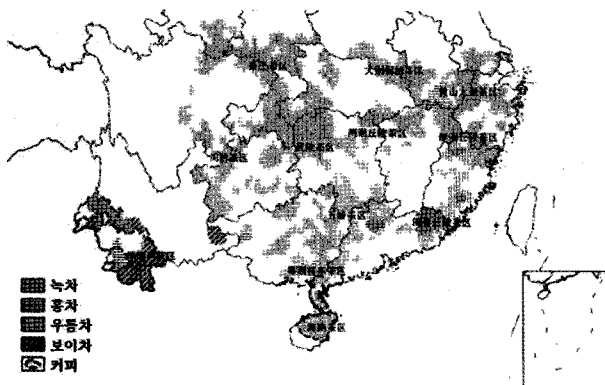


그림 3. 주요 차, 커피의 생산 및 가공산업 지역 분포도

벌꿀의 기능성 인자의 추출, 합성, 분석, 검사, 평가, 분리 등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며 벌꿀 제품 개발의 심도와 범위를 늘려서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 특히 벌꿀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하여 당뇨환자용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개발한다. 그리고 벌꿀 화분을 이용한 제품의 개발도 진행하여 핵산류,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등 활성물질을 함유한 항노화 기능을 갖춘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한다. 벌꿀의 가공산업 단지는 북경, 상해, 강소, 절강, 호북, 광둥, 사천 등의 지역에 위치한다.

9) 버섯 가공단지 분포

버섯의 가공과 신선도 유지 기술의 연구, 고급 상품의 개발 등을 진행하여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출시한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여 그 부가가치를 한 단계 높인다. 버섯 중의 기능성 성분의 추출 및 이용에 관한 연구를 장려하여 효능을 높인다. 버섯의 주요 생산지는 흑룡강, 길림, 절강, 복건, 산둥 등 지역이며 이 지역에 대형 가공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특히 무공해 녹색식품, 유기식품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한다. 버섯의 일차가공 비중을 80% 이내로 낮추고, 이차가공을 통한 건강기능성식품 및 약품으로의 가공의 비율을 각각 15%와 5% 이상으로 늘린다.

2. 농식품 가공 산업의 발전 전망

11차 5개년 계획 기간 위에서 언급한 발전 전략을 지침으로 하여 농식품 가공산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조 조정과 산업의 부단한 발전을 꾀하며, 상품 질량과 효율을 현저히 제고시킨다. 가공 단가를 최소화 하는 전제하에서 매년 12%의 발전속도를 유지하며 11차 5개년 계획이 끝나는 2010년에는 농식품 가공산업 매출액을 7조 위안 까지 증대하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11).

1) 농식품 가공 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그레이드업 한다.

2010년 주요 농식품 가공의 전환율이 60%에 도달하게 한다. 그 중에서 곡류 가공의 전환율이 75%, 과일류는 15%, 채소류는 5%, 축산물은 15%, 수산물은 35% 이상 도달하게 한다.

2) 농식품 가공의 질과 양을 현저히 제고한다.

농식품 질과 양·안전 제어 시스템을 작동하여 녹색식품과 유기농 식품 생산을 촉진시킨다. 2010년에는 60% 정도의 농식품 가공업체가 ISO, HACCP 등의 품질 인증의 취득을 의무화한다. 농식품 가공제품의 질과 양을 현저히 제고하여 국내외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브랜드 상품을 개발한다.

3) 농식품 가공 기술과 설비 수준을 제고한다.

농식품 가공산업의 기술 수준과 제품 품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생산 원가를 절감한다. 핵심기술과 기법, 장비를 개발하며 농식품 가공설비의 60% 이상 국산화를 실현한다.

4) 대형 농식품 가공 산업체를 양성한다.

연 평균 수출액이 100억 위안 이상 되는 대형 농식품 가공산업체를 양성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초대형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대형 농식품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하여 연관된 중소 가공산업체도 양성한다.

5) 기초시설 건설 및 설계를 최적화한다.

‘우수한 농식품 분포 계획안’ 및 ‘특색 있는 농식품의 분포 계획안’에 근거하여 기계화 및 자동화된 농식품 생산 및 가공 플랜트를 설치한다.

6) 산업화 경영능력을 진일보 제고한다.

농민경제연합노조를 발전시켜 더욱 많은 농가가 농업 산업화 경영에 참여하도록 지원해준다. 따라서 산업화 경영을 통한 농가소득을 대폭 증가시켜 빠른 시간 내에 개별 농가들이 소강(小康)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

IV. 결론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이래, 농업과 농촌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으며, 농식품 가공산업도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농식품 가공산업은 농업의 중요한 원동력이며 농업과 시장을 연결하는 교량적 역할을 한다. 중국이 현대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행중인 11차 5개년 계획은 10차 5개년 계획 중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아가면서, 현대화 농업 특히, 농식품 가공산업의 산

업구조 및 상품구조와 기술구조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농업의 산업화·국제화·지식화·특색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갈 것 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각종 농산물의 생산 면적과 소비 인구가 수십 배에 달하는 강대국을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의 농산업과 농식품 산업의 정책과 이에 따른 구조적 변환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어떻게 자국의 농산업과 농식품 산업을 기획하고 활성화 하느냐가 단순한 식량의 수급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전체 농식품의 사활이 달려있는 중대한 관건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1. 彭秋香. 中國對韓農產品出口比較優勢測算. 市場論壇, 4:14-15 (2008)
2. 舒涵. 三農:2009年中央經濟工作重中之重-中國農產品加工業關注-2009年我國經濟工作要點. 農產品加工業 2:15-16 (2009)
3. 王秀忠. 我國農產品加工業面臨的主要問題及對策. 農村實用工程技術, 4:18-21 (2005)
4. 魯德銀. 中國農產品加工技術與發達國家的差距與政策. 6:93-96 (2005)
5. 魏益民, 方桂林, 丁凡. 農產品加工業發展現狀與趨勢分析. 農產品加工 3:48-51 (2009)
6. 佟玲, 李成華. 我國農產品加工業的現狀及發展趨勢. 農機化研究, 5:11-15 (2005)
7. 科技部農村發展司. 中國農產品加工發展戰略. 科學出版社. (2005)
8. 丁樹鋒. 農業可持續發展視角的農產品深加工問題分析. 遼寧工程技術大學學報, 2:31-33 (2009)
9. 韓中科學技術合作中心. 10·5 기간 농산식품가공기술 및 설비 연구개발 성과 (1.2.3). (2005)
10. 中國農業部. 農產品加工業“十一·五”發展規劃. (2006)
11. 籍俊杰. “十一·五”農產品加工發展展望. 農產品加工, 12:43-45 (2005)